



## 미 증시, 낙폭과대 인식에 힘입어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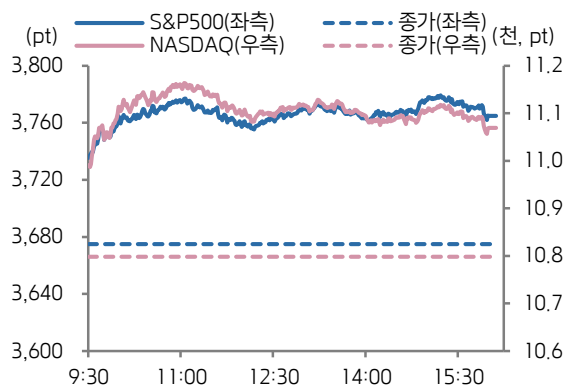
21 일(화) 미국 증시는 급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국제 곡물가격 급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안 완화 등으로 상승 마감. (다우 +2.15%, S&P500 +2.45%, 나스닥 +2.51%, 러셀 2000 +1.7%)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밀, 팜유, 옥수수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커짐.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내년엔 경기침체를 겪을 확률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모건스탠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직 주가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등 주요 IB에서는 침체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음. 또한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7 월 FOMC 에서도 기준금리 50bp~75bp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언급.

전미부동산증개협(NAR)가 발표한 5 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대비 -3.4%(예상치 -3.7%, 전월치 -2.6%) 하락 하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4 달 연속 감소세 기록. 모기지 금리가 5%대까지 상승한 가운데 중간 판매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40 만 달러 상회. 집계측은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올해 주택판매 둔화가 예상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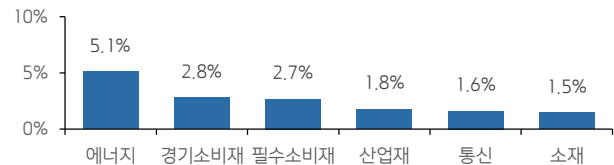
업종별로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5.1%), 경기소비재(+2.8%), 필수소비재(+2.7%)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소재(+1.5%), 통신(+1.6%), 산업재(+1.8%)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애플(+3.28%), 테슬라(+9.35%), 엔비디아(+4.32%) 등 주요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알파벳(+4.11%)은 넷플릭스(-2.62%)와 광고 제휴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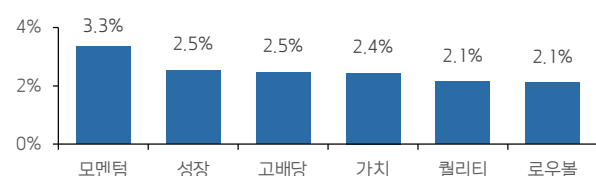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64.79	+2.45%	USD/KRW	1,293.65	+0.13%
NASDAQ	11,069.30	+2.51%	달러 지수	104.42	-0.27%
다우	30,530.25	+2.15%	EUR/USD	1.05	+0.02%
VIX	30.19	-2.71%	USD/CNH	6.69	+0.03%
러셀 2000	1,694.03	+1.7%	USD/JPY	136.67	+0.07%
필라. 반도체	2,649.37	+2.75%	<b>채권시장</b>		
다우 운송	13,061.64	+1.5%	국고채 3년	3.660	-0.8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3.772	-1.3bp
Eurostoxx50	3,494.00	+0.7%	미국 국채 2년	3.196	+1.8bp
MSCI 전세계 지수	597.33	+1.91%	미국 국채 10년	3.275	+4.9bp
MSCI DM 지수	2,494.99	+0.37%	<b>원자재 시장</b>		
MSCI EM 지수	1,000.42	-0.42%	WTI	109.52	+1.42%
MSCI 한국 ETF	59.57	-0.22%	금	1838.8	-0.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6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미국 증시의 반등이 국내 증시 투자심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주들이 국내 전기차, 2차전지주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재료 소멸 이후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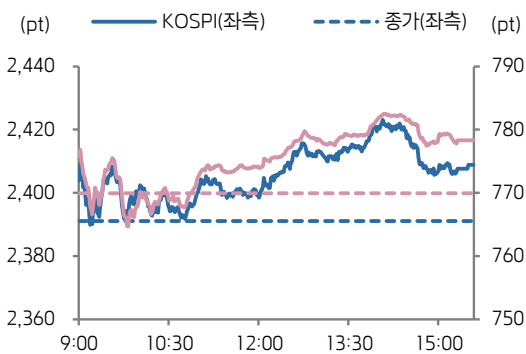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주식, 암호화폐 등 전거래일 위험자산들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침체 불안이 제대로 완화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주요국 증시의 바닥론에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시장 참여자들의 대규모 손절매를 지칭하는 항복 매도세(Capitulation)가 나와야 증시의 바닥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 또 이미 팬데믹 사태를 넘어서 준금융위기 급의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300pt 고점에서 2,400 대까지 내려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안정 목적의 주식매매 중단 장치가 발동되지 않았다는 점도 항복매도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단기 폭락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던 과거 다수 사례와 달리, 현재 주요국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단식 하락을 겪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들이 수시로 출회 됐던 만큼, 잠재적인 항복 매도세 출현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 물론 연준 긴축 우려 및 그에 따른 침체 불안 재확산 시 수급상 지수 하방 압력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 더 나아가, CME Fed Watch 상 7 월 FOMC 75bp 인상 확률이 90%대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은 상당부분 추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불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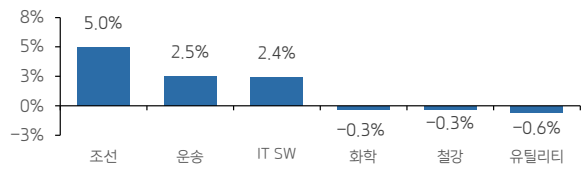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 반등 효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는 비관론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하지만 코스피 밸류에이션(선형 PER 8.83 배, 선형 PBR 0.87 배)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비관론에 베풀는 전략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또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9.4%), 니오(+9.2%) 등 전기차 주들이 견조한 수요에 따른 판매량 확대 전망 등에 힘입어 동반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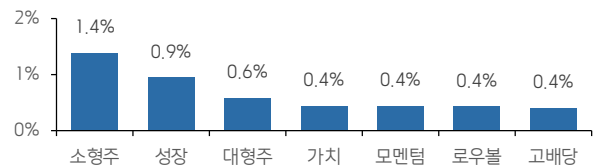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